

정체성. 미술을 넘어 전 문학과 예술을 총망라하여 가장 인기리에 선택되는 화두는 '정체성'일 것이다. 일반인들조차 해가 넘어갈 때 마다 광의적 존재감을 찾아 격렬한 고뇌를 할진대, 한 고뇌한다는 작가들에게 있어 정체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수순과도 같은 테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로의 입양이나 이른 이민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작품들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에서 숨 가쁘게 거듭되는 정치적 이념들의 붕괴와 재건 등은 작가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층적 스펙트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사진작가 김인숙의 작품들이 그것이다.

사진작가 김인숙이 그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역시 '정체성'이다. 일견, 그의 작품들은 명백히 인물사진(portrait photography)에 해당된다. 인물사진들을 통해 그의 정체성 탐험은 시작된다. 사진의 본질적 요인인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그의 공간은 일본에서의 한국이고 그의 시간은 과거에서의 현재이다. 다른 사진작품들과 달리 그의 작품들은 하나의 점에 위치하지 않고 선과 면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정체성은 한국작가들이 고민하는 정체성과는 다른 선상에서 출발한다. 한국인이면서 일본에서 자라고 북한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한국과 북한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 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도 작가에게는 의심의 여지없이 조국이다. 따라서 김인숙에게 있어서 사진 속의 인물들은 다문화적으로 균형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속의 한국을 그리고 한국 안의 두 조국을 동시에 살고 있다. 작가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작가로서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과 일본 속의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관점 등은 작품을 통해 점점 더 예리해져 감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오사카의 조총련계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업한 프로젝트 <스위트 아워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작가가 수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스위트 아워즈(Sweet Hours)> 시리즈는 정체성 연구를 고찰해 나가는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찍어 놓은 작품들은 마치 가족앨범과도 같다. 몇 해 전 처음 작가의 카메라를 향해 까르르 웃어대던 아이가 어느덧 치마저고리(교복-일본의 조총련계 학교에서는 검은색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입는다)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소녀로 자라났고, 짝조인 셔츠 카라 안의 꼬마는 이제 교복을 힙합바지처럼 헐렁하게 내려 입는 소년으로 컸다. 작가는 이 시리즈를 통해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찍고 있는 중이다. 수 만장에 달하는 이 사진들은 단순히 기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의 기록은 작가적 감상과 비전으로 싸여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작가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을 때, 그는 만감이 교차했고 작가로서의 불길한 징후들을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이러한 것들을 감쇄시키려는 시도를 했고, 그 뜨겁고 밀도 높은 메시지로서의 본질을 지닌 사진은 작가에게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하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얼마 후, 외국인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고 관심자체를 촌스럽게 여기며, 일본의 조총련을 빨갱이로 알고 있는 일반의 한국 사람들에게 <스위트 아워즈>는 단순히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작가가 다큐멘터리적 본질을 작품에 상정함과 동시에 일기가 지닌 속성을 이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순간 포착의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개인적인 반성과 회상을 재편성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결국 김인숙의 인물들은 작가의 페르소나로서 혹은 세상에 반응하는 작가의 진화적 대상으로 성장한다. 비단, 수년의 시간을 넘기며 작가와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부분은 하나 더 있다. 바로 인물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협의로는 교실이겠지만, 광의로는 정체성 혼란의 현장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칠판 위에 걸려있는 교실은 관람자의 당황함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사진들은 그 옛날, 박정희와 전두환의 사진아래서 공부했던 우리의 과거를 연상시킨다. 결국 작가의 작품 속 인물과 공간은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동의 신경에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김인숙의 <스위트 아워즈> 시리즈는 다큐멘터리의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토양 위에 최고의 경험치를 자랑하는 일기(다이어리)의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묘목을 세운 셈이다. 즉 작가는 부분이면서 전체를 대변하는 독특한 작가의 상황을 한국의 시대적 담론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감성적 표현과 물리적 기술의 교배인 '다큐어리(Dacu-iary)'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김인숙의 다큐어리(Docu-iary)는 다양한 물리적 실험도 감행한다. 이는 김인숙의 한국생활 1년째를 자신의 포트레이트와 함께 담아낸 사진들과 6장의 편지로 이루어진 시리즈 <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볼 수 있다. 모자이크처럼 일상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대형의 인화지는 스틸 이미지들과 구슬픈 <임진강>이라는 가요와 함께 설치 작업으로 거듭난다. 이때, 관람객의 공간을 점유하는 <임진강>은 김인숙의 다큐어리를 기술적으로 보완한다. 그리고 작품의 아우라는 한층 강화된다. 한편, 작가는 실물사이즈의 인물 사진들을 관람자와 일대일 대면시키기도 한다. 관람자를 미혹시키는 치마저고리의 소녀는 대한민국의 소녀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의 뿌리로부터 나온 살과 피로 빚어진 우리인 것만은 확실하다.

솔직히 말하면, 김인숙의 작품은 잘 정돈된 혼란 덩어리다. 작가도 혼란스러워 하고 나도 그러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어느 작품보다도 명쾌하다. 너무 명쾌해서 어느 지점을 작업의 문제제기로 보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다. 언젠가 출장지에서 외국의 한 큐레이터는 참으로 엉뚱한 말을 했다. 한국의 작가들은 할말이 많아서 좋겠다고. 남한, 북한의 이야기만 해도 평생을 하고도 남겠다고. 언뜻 들었을 때 참으로 무식한 말이 아닌가. 하지만 실상은, 그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외국인들보다도 북한을 모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라는 말 자체에 지레 겁부터 먹는다. 과연 국내의 작가들 가운데, 북한과 남한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멋진 작업을 해 냄으로써, 소위 부와 명예를 거머쥔 작가가 있는가? 없다. 있어도 없다 할 만큼 없다. 그 옛날 민중미술이라는 타이틀로 첨예하게 맞섰던 작가들조차도 민족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독재정권타도가 우선이었다. 우리(남한)는 우리만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이야기하기에 바쁘고, 우리 안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혼란스러움을 살피기도 벅차다. 그러한 가운데서 김인숙의 작품은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아이덴티티 자체도 신선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접근적 방식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살리면서 작가 고유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것이다.